

광주 GS 키스 “반상 돌풍 보여주마!”

한국바둑리그 개막...지역연고 8개팀 선수 확정 27~28일 부산 파크랜드와 ‘영·호남 대국’ 펼쳐

광주 연고팀 GS 키스(KIXX)가 오는 27일부터 한국바둑리그 대장정에 들어간다.

광주 KIXX는 백성호 9단을 감독으로, 국내 프로기사 통합 랭킹 2위 최철한 9단, 박정상 5단(7위), 홍민표 5단(31위), 이재웅 4단(36위) 이상 통합 랭킹, 최원용 4단(기전 랭킹 49위)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양재호 9단은 와일드 카드로 팀에 합류했다. 와일드 카드는 상급 랭킹 20위에 들지 못하고 선수선발 예선전에서도 탈락한 기사를 가운데 각 팀이 한 명씩 추가 지명할 기사다.

선수단 구성을 마친 광주 KIXX는 오는 27일과 28일 부산 연고팀 파크랜드와 ‘영·호남 대국’을 벌인다.

KIXX는 GS 칼텍사의 휘발유 명칭으로 이 회사의 사업장이 여수에 있기 때문에 광주를 연고팀으로 삼았다.

광주 KIXX를 비롯한 8개 팀은 오는 11월까지 더블 리그 방식의 정규리그를 벌인다. 리그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4개 팀이 오는 12월 열린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 정규 리그는 각 4팀 선수 가운데 4명이 출전해 승리 3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 방식으로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린다.

포스트시즌은 스텝래더(step ladder) 방식으로, 정규리그 4위와 3위가 준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승자와 정규리그 2위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승자와 정규리그 1위의 최종 챔피언결정전(3번기)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팀은 중국 갑급 리그 1위 팀과 한·중 챔피언스 리그를 갖는다. 올해 총 상급 규모는 지난해 두 배인 30억원이다. 참가 선수도 32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고 정규시즌 경기 수도 지난해 7라운드에서 14라운드로 두 배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감독에 의한 선수 오더 시스템. 주장부터 4장까지 미리 선수 포지션을 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올해는 감독이 출전 선수를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컨디션과 기풍, 일정 등 변수를 고려해 선수를 선정해야 하는 감독들의



지난 14일 열린 KB국민은행 2006한국바둑리그 개막식에서 광주 연고팀 GS 키스 소속 이재웅 4단, 박정상 5단, 최철한 9단(왼쪽부터)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치열한 반의 두뇌싸움이 승패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은 8개 팀 연고지와 선수명단.

▲GS 키스(광주)=최철한 박정상 홍민표 이재웅 최원용 ▲신성건설(대전)=안조영 목진석 김승준 루이 양재호 ▲한계인(경기)=이영구 원성진 김성룡 김영삼 은소진 ▲제일화재(서

울)=이세돌 송태근 김지석 안달훈 김혜민 ▲파크랜드(부산)=조호현 강동윤 김주호 서건우 오규철 ▲월드메르디앙(경북)=조한승 유창혁 윤준상 이정우 김만수 ▲매일유업(인천)=이창호 고근태 류재형 홍성지 김영환 ▲영남일보(대구)=박영훈 이희성 김형우 윤성현 허영호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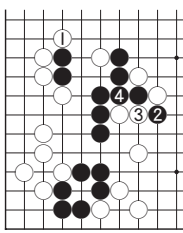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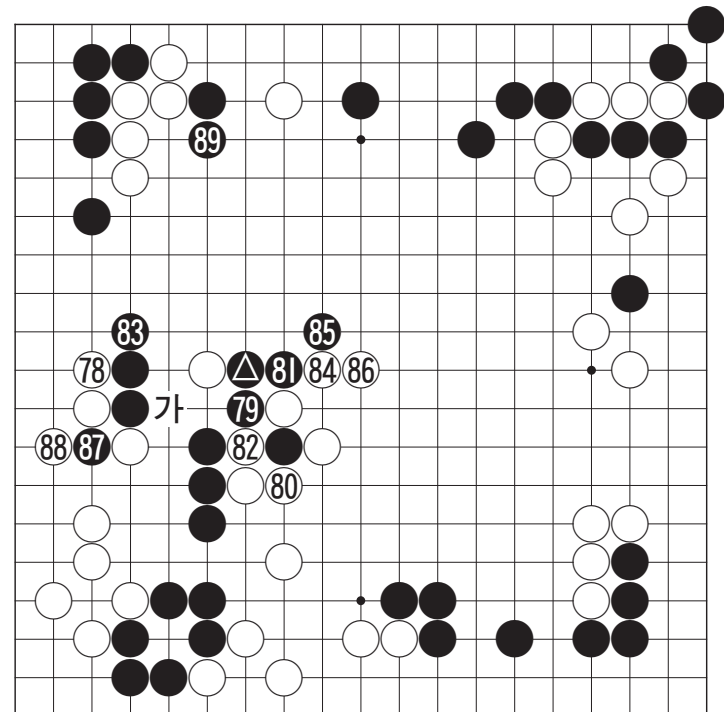


희심의 공격

결승전 제 6보(78~89)

白 이창호 9단 <엠게임>

黑 조한승 8단 <타이젠>



<참고도>

흑 86가 모 양 갓추기의 백점으로 유일한 타계책이다. 이런 경우 하수들은 당황한 나머지 '가'의 곳에 빈삼각으로 두어 연결에 급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상대의 호된 공격을 받게 된다. 백은 급수를 때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우선 78로 밀어 짹짹하게 살리를 쫓고 계속해서 흑을 괴롭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흑 79이 두터운 수다. 이때 백은 참고도의 1로 맞고 싶지만 그러면 흑 2의 이단짓음을 당해 4까지 되던 다음 응수가 공해진다. 그래서 백은 80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선수를 잡은 흑은 83으로 늘어 요처를 차지했다. 백 86까지의 질풍은 백이 공격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하기는 어렵다. 상대의 실수에 의지 않고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 균형을 잡아가는 법이다. 백은 88로 좌변에서 살리를 쫓았다. 조한승 8단은 함참을 생각한 뒤 상변 89로 한 점을 늘였다. 이제까지 참고만 있던 조 8단이 노리는 희심의 공격이다.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北 바둑계 유망주 ‘토종’ 조대원 눈에 띄네

아마 6~7단 실력 보유

내달 세계선수권 우승 기대

북한에는 아마 6~7단의 실력이 비슷한 젊은 바둑기사들이 10여 명 포진해 있으며 이 가운데 순수 토종인 조대원(18·조선체육대학)이 가장 유망한 기사로 꼽히고 있다고 북한의 바둑 관계자가 지난 19일 밝혔다.

평양시 바둑구락부 고방태 책임감독은 제일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



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국내에는 박호길, 리봉일, 리광혁, 조재별, 오현 등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이 10명 정도 있다”며 “우리는 그 가운데 조대원을 유망한 선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조대원은) 바둑에 대한 정열, 탐구심이 강하고 공부량도 많다”며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아마 추어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대원은 지난 2월 초 북한에서 열린 최종 선발전에서 라이벌 박호길을 따돌리고 세계아마추어바둑선수권대회 북한대표로 출전한다.

조 감독은 또 선수들 가운데에는 외국에 유학을 다녀오거나 프로기사의 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조대원은 “순수 조선의 자력갱생의 힘으로 키워낸 선수”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오규철 9단 '입신' 기념 축하연

28일 오후 7시 상무리조트컨벤션



오규철 9단의 입신(入神·9단) 기념 축하연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오는 28일 오후 7시 상무리조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다. 광주지역 대표기사인 오 9단은 지난 83년 입단 한 뒤 88년 왕위전, 89년 패왕전 준우승, 2006 제3기 전지랜드배 왕중왕전 현무부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메이저 기전에서 활약하고 있다. 2001년 8단으로 승단했으며, 지난해 11월 9단으로 승단했다.

그는 올해 부산 연고팀인 파크랜드 유니폼을 입고 한국바둑리그에 참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런던역국사거리 ☎02-544-0600

13년차 정진 예정 올 봄엔 은근슬쩍 뽀뽀해 볼까?

엔터시네마 총장로 57가 ☎228-2700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아주 특별한 제안

국민지도

중양토개발컨설팅

GS부동산컨설팅